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충격 - 21년 전 구미사업장 화형식 재현하나

글 홍성우 / 편집 장인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가났다. 8월 출시 한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9월 2일, 배터리에 결함이 있음을 다급히 공식 발표했고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250만대 규모의 글로벌 리콜을 발표하였고, 신제품으로 교환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발화 사고가 나면서 삼성은 10월 11일 이 제품의 전면적인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결정을 발표하였다. 갤럭시노트7은 총계인식, 발전, 방수 등 첨단 기능을 추가하여 국내외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7초원의지 총 손실을 내며 삼성전자 역사 속에 큰 오점을 남긴 제품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가치있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충격적이다.

삼성엔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중국 규제 당국 등 각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내비치며 갤럭시노트7 사태는 잠잠해갔다. 또한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 삼성전자가 허언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밝혔다. 허언은 1956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오도메터 전문 기업 중 하나이며 건강사업 분야 선두 기업이다. 건강사업이란 자동차의 전자장치부품사업을 통칭하며 카세트키(경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의 핵심 부품과 관련된 사업이다. 삼성의 허언 인수액은 80억 달러, 한화로 9조 3920억 원의 규모를 보인다.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합병 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이번 인수합병은 삼성의 신성장사업전공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사업 의존도를 무리해서 분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5년 삼성은 불황기를 15만대(약 500억 원)치를 수거해 구미사업장에 팔아놓고 해머와 불도저로 망가뜨리고 화형식을 했다. 실재 속에서 제도익을 이루겠다는 삼성의 강한 의지였다. 이름에 삼성전자는 51.5%의 경우율을 달성하며 국내 휴대폰 시장의 선두로 올라서게 되었다. 삼성은 동경에 허점이 생기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회사의 존속마저 위태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날의 오욕은 삼성을 선도적 기술로 전자 시장을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아직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처음에는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새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에서도 발화가 계속되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장 케이스 설계나 소프트웨어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공정,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삼성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다. 발화 사고를 굴복수습하기 위해 배터리를 폭발 원인으로 규정짓고 성공적 리콜을 실시하다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불러오는 우를 이미 한차례 범하였다. 신성장 사업 진출경로로는 갤럭시노트7 사태의 실망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끝까지 없을 것이다. 발화 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21년 전 '화형식'을 재현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협회에 대해 알아보자

글 박준협/편집 권이은



##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의 프로축구는 1983년 2개 프로팀(유공-합철루아)과 3개 실업팀(대우-국면은형-포항제철) 세미프로인 슈퍼리그가 시작하였다. 1984년 대우 로얄즈-포항제철 2개 실업팀이 프로로 전환하고 현대 호랑이, 럭키금성 황소가 리그에 참가하면서 6개 프로팀과 2개 실업팀(국면은형, 한일은행)이 경기를 치렀다. 1994년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 출범하였다. 이 시기에 전북 다이노스와 전남 드래곤즈가 창단하였다. 1995년에는 8개의 구단으로 리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수원 삼성이 창단하였다. 1996년 기존의 지역 연고제를 보완한 완전 지역 연고지 제도를 시행하여 팀명을 부산 대우, 전남 드래곤즈, 울산 현대, 포항 스틸러스, 수원 삼성, 전북 현대, 대전 시티즌, 천안 일화, 안양 LG, 부천 SK로 변경하였다. 2000년 천안 일화가 연고지를 이전하여 성남 일화 천마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2년 대구 FC와 광주 상무가 창단한 데 이어 2003년 인천 유나이티드가 창단하였고, 안양 LG가 연고지를 서울로 옮겨 FC 서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경남 FC가 창단하였고, 부천 SK가 연고지를 제주도로 옮겨 제주 유나이티드 FC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강원도를 연고지로 하는 강원FC가 15번째 구단으로 창단하여 2009년 시즌부터 K리그에 참가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16번째로 광주FC가 창단하였다.



## ◇ 한국야구위원회

한국야구위원회는 한국이한국프로야구를 총괄 관리하는 사단법인체다.

1981년 12월 11일 열린 한국프로야구위원회(KPBC) 창립총회는 이 땅에 프로야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지금도 이날을 기념해 각 포지션별 최고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매년 같은 날에 연다. 1982년 1월 15일 첫 구단주회의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로 이름을 바꿨고 같은 해 3월 27일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에서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전을 열었다.

첫 해 지역연고제를 기반으로 OB, 삼성, MBC, 해태, 롯데, 삼미(첫 해 성적순) 등 6개 구단으로 출범했으나 매각과 창단(1986년 빙그레, 1991년 빙방울)의 과정을 통해 2011년 SK, 삼성, 두산, 롯데, KIA, LG, 넥센, 한화(2010년 성직순)의 8개 구단으로 늘어났다. 2011년 3월 31일 창원을 연고지로 하는 제9구단 연세소프트가 창단했다. 경기 운영체제는 1982년 6개 팀이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나뉘어 팀당 80경기씩 총 240경기를 치르고 전·후기 우승팀에 7전 4선승제의 한국시리즈로 챔피언을 가졌으나 수 차례의 변화를 거쳐 2011년에는 팀당 133경기씩 총 532경기를 치르는 단일리그제로 확정됐다.



## ◇ 프로농구연맹

1993년 프로농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부터 3년 후인 1996년 10월에 7개 구단으로 연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나라 해커스와 나산 플라망스가 추가로 가입하여 1997년 2월 9개 팀에 의한 FILA에 프로농구가 개막되었다. 1997년 9월 청주 SK 나이츠가 회원에 가입하여 1997년 11월의 FILA에 1997-1998년 프로농구는 10개 팀이 참가하였고, 1998-1999년 프로농구의 명칭은 걸리버로 바뀌었다. 1999년 8월 나산 플라망스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의 골드뱅크 울리커스 프로농구단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했다.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재와 구단주로 구성되는 총회와 이사회를 비롯하여

재정위원회-기술위원회-마케팅위원회-경기위원회-심판위원회-선수복지위원회 등이 전문위원회 그리고 사무처(경영관리팀-홍보마케팅팀-경기운영팀-업무지원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한국배구연맹

실업리그를 운영하던 한국 배구는 기존의 실업 리그 체제로는 배구의 저변 확대와 실력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야구, 축구, 농구에 이어 단체 경기 종목으로는 네 번째 프로 스포츠로 출범했다. 2005년 원년에는 지방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리그를 운영하였고, 2005-2006시즌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다섯 개 도시에 연고지를 정하여 운영했으며, 2009-2010시즌부터 서울 연고팀이 추가된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인천, 수원, 천안, 대전, 구미 등 각각의 연고 도시는 남자팀과 여자팀이 같은 경기장을 사용도록 하고 있다.



## ◇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Korea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PGA)는 한국 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하여 프로골퍼의 자질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체력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골프를 보급하며, 국내·외 경기를 유지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교류증진과 골프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8년 11월 12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음악이야기]

# 음악 플러스 알파 : 미술, 문학, 자연과 음악

글 김신재 / 편집 조영민

베르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다른 예술 분야의 특성들을 차용해왔다. 그 중 대다수는 미술과 문학 쪽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참이기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특별한 음악적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음악에 적합한 요소나 서사적 요소를 도입할 수도 있다. 현대에 와서는 좀 더 분석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음악으로 옮겨 놓는 작곡기도 등장했다.

음악을 미술에 빗댄 사람들은 음악을 '시간을 공간으로 삼고, 소리를 재료로 삼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리스트의 후기적은 회화적 요소에 맞닿아 서사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리스트가 피아노 음악에서 기교를 극도로 추구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의 음악을 관통하는 회화적이면서도 서사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과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순례의 해'라는 모음곡집, '호랑기교 연송곡'이라는 연송곡집 등을 통해 음악의 회화적, 서사적 요소를 시험했다. 몇 곡을 제외하고는 전부 표제가 붙어있으며, 음악에 붙은 표제는 그 음악들이 연주자나 감상자가 임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표제는 그 곡이 회화적인지, 서사적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암시한다. 예컨대 '메사세 계곡의 분수', '도깨비밭', '눈 치우기' 등은 대표적인 회화적인 곡이고 '단테를 읽고'는 문학적인 음악의 대표작인 예이다. 일년적인 '별 위를 걷는 성 프란체스코'는 두 요소를 모두 품은 걸작이다. 하지만 리스트는 두 가지 요소를 극한까지 추구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드뷔시나 라벨처럼 회화적 요소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슈만처럼 완전한 문학작품 같은 음악을 작곡하지도 않았다.

슈만의 곡은 문학적이다. 내용은 자연에서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정하는 방식부터 곡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 마무리하는 방식 전부가 마치 한 편의 글씨 쓰는 듯 견정되는 것이다. 아베크 변주곡이라던지 카니탈 같은 대아는 작품에서 찾을 수 있듯, 문자로 된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그 주제를 변용시켜서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아베크 변주곡의 예를 들면, A-B-E-G-G (G시 미음표)이 주제가 되는 식이다. 카니탈은 Asch라는 동태를 생각하여 작곡한 모음곡인데, 각 소곡의 첫머리마다 A S C H 네 문자를 기점으로 한 음절이 배치된다. 곡에서 사용되는 주제 또한 다양했다. 앞서 언급한 아베크 변주곡이

러던지 카니탈은 다소 가벼운 분위기와 밝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판타지 Op. 171는 여러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실과 죽음, 자살이 있고 있던 두 개의 자아의 충돌, 그리고 불인, 우울을 담아낸 곡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학적인 음악 작품은 베르디 또한 많이 작곡을 하였다. 그의 곡들은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에 고전 한양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움이 연주가 되었음에, 작곡자 자신에게 더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묘가 종종 들어올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하다 베르디는 특종 문학 작품을 읽어보고, 편하게나, 아니면 각 악장에 대한 해설을 문학적적으로 붙여내어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메사상은 새 대아되었다고 한다. 물론 새에 대한 직통한 작곡한 것은 아니고 새를 주제로 한 작품만 유명한 것도 아니지만(마치 메수를 바라보는 스무가지 시선 등 걸작들이 있다), 새소리를 묘사한 작품이 그의 작품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제 카탈로그'라는 작품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음악 이론과 음향학 이론, 심지어 물리학, 생물학적 지식까지도 총 동원해 새소리를 실제와 거의 똑같은 소리로 악보에 그려넣었다. 그 분량 또한 어마어마해서, 수십 종의 새 소리가, 그것도 한 곡당 거의 50년 50분, 길면 15분에 육박하는 분량으로 작곡되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 소리를 묘사해서 작곡한 작곡가들은 메사상 이외에도 많지만, 실제 새소리와 거의 흡사하게 '메사상'의 한 수 준으로 작곡한 것은 메사상이 유일무이하다. 메사상은 새소리 이외에도, 자연 현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일이 많았는데, 드뷔시나 라벨 등 다 단순히 문학적 묘사를 한 것에 그쳤다. 메사상은 한방 더 나아가 분석적 기법으로 아예 똑같이 악보에 적어넣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 APOLLONIA



아폴로니아 제94호 | 2016년 12월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

## 34대 학생회 '이솔' 선출 당선 - '이솔' 선출의 학생회장 김태석, 부학생회장 김대근 당선 -

글 김경민 / 편집 김경민

### 34대 학생회 선출

2016년 11월 29일,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34대 학생회장단이 최종 결정되었다. 학생회장 후보는 일주일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선출을 구성했으며, 선출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24일, 25일 일주일간 투표로 마무리되었다. 개표는 29일에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역사적으로 학생회의 최종 선출이 마무리되었다. 선거는 '이솔' 선출이 단독으로 승리하여 전방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투표 결과 분석

이번 학생회장단 선거의 기표소는 본교 2층 로비의 학생식당 앞에 설치되었다. 총 242명의 유권자 중 186명이 투표하여 76.8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그 중 찬성이 171표, 반대 13표, 무효는 2표를 차지한다. 학년별 투표율은 1학년 94%, 2학년 70%, 3학년 63%, 4학년 78%로 학생회가 좋아하는 1학년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4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이어졌다. 추가로 설치된 학생식당 앞 기표소 이용률은 4학년에 가장 높았다. 당초 학생식당 기표소는 접근성이 애매한 교학관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4학년에 높은 투표율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이솔은 순수 무리없이며 '소나무의 기성과 울림을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진다.

### '이솔' 선출 최종 당선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단독 승리했던 '이솔' 학생회의 당선에 확정되었다. '이솔'은 김태석 학생회장이 주도하고 김대근 부학생회장, 기희 1국(국장 신병철), 기희 2국(국장 홍성민), 서무국(국장 김태수), 학다어국(국장 김경휘)으로 구성된다. 학생회 구성은 33대 학생회 '가분'과 같으며, 기희 1국과 2국은 직접적인 행사진행, 서무국은 기회의 시류화와 재정관리, 학다어국은 각종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이솔' 학생회는 본교 교육 목적에서 인정을 받아 학생, 학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생회를 목표로 3단계로 구성된 공약을 내세웠으며,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34대 학생회의 과제

2017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이솔' 학생회에게 주어질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존에 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본교건물예예과생들의 본교건물, 생활의 통합으로 인해 다른 성격의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회의 역할은 이들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년엔 우리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축제(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이다. 학교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전국적인 행사란 만큼 부드럽고 편안한 진행이 요구되는 바이다. 내년 한 해 동안 학교를 대표할 학생회가 이 두 과제를 달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동창회 소개]

###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 박경덕 신임회장 선출

글 김경민 / 편집 김경민



박경덕신회 총합생! 매체과위원장이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는 대한치과회시립회(인문부·학업성취 부회장,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 김성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남순현 경북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0일 호텔 아문테에서 동창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주요 기사]

- 보도 1 34대 학생회 '이솔' 선출 당선 동창회 소식
- 2 23 각 학년 대표단, 2016년을 마무리하며
- 4 33대 학생회 '가분'이 전하는 인사
- 5 34대 학생회 '이솔'
- 12 동아리 소식

### [만문 이름]

- 사회 6 2016년 미국 대선
- 7 김경민 '밥은 무안인가'
- 8 실성전자 갤럭시 S. 7 특필
- 9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연하에 대해 알아보기
- 문화 30 음악 클래스 일파 : 마술, 문학, 자연과 음악
- 11 대구 근교로 떠나는 겨울여행
- 편집부 : 박지훈, 이이애, 한승희, 박재민, 이지현, 홍유진, 권이음, 문유지, 박재영, 손해지, 김민호, 송준석, 신정민, 홍경우
- 보도부 : 이근석, 이상현, 김경민, 김대근
- 사회부 : 임경호, 정은경, 박순현, 최영민
- 문화부 : 한성민, 박경우, 이재진, 안유진, 오주애
- 수습기자 : 김진호, 박재형, 박순희, 박원준, 최수영, 김민주, 김현진

# 각 학년 대표단, 2016년을 마무리하며

글 김진우, 김현진, 이학준, 이재현, 신정민, 장인호, 윤유미, 송은석, 변정희, 정경우

올해 2월, 주은 남예 체육 대표단을 선출하고 1년을 바쁘게 달려보니 어느덧 벌써 12월도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성과 실을 다져 각 학년을 든든하게 잘 이끌어온 대표단을 만나보았습니다.

## 예과 1학년

### 대표단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시간이 훌쩍 지나 가벼운 느낌입니다. 큰 할 일 없기를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솔직한 마음으로는 대표단으로서 받았던 칭찬과 책임감으로부터 책임되어 기쁜 마음이 고기도 합니다.

### 올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 있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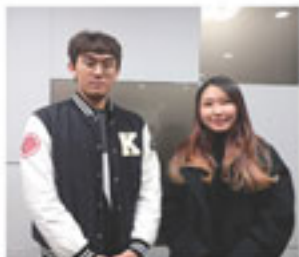
단연코 동계 모토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부의 혁신인 행사 그리고 송인호 반을 깨서 무어극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힘들게 준비한 단골 격정도 있는데, 다행히 동계 여러분들이 저희가 기획한 게임과 이벤트를 즐겁게 즐겨주셔서 성취감이 배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여러 학우들께서 두번에 걸친다 제각을 권오하였을 때 결단력을 보여 의견 조율과 정리해 해아 했는데 격구적인 행동을 취해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앞으로 각 학년 대표단이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연례나 자신이 한 학년을 대표하는 사명이라는 인식을 하고 책임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이 될 때 행동의 신중성으로도 연결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보람되고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일도 있었고 다소 아쉬웠던 일도 있었지만 해였습니다. 여러수한 제가 대표를 맡아 재도 격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동계 여러분들께서 9개월 동안 부족한 제를 잘 따라와 주셔서 올 한해 무사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봄 후 찾아오는 이과과 대표 1학년의 발목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예과 2학년

### 대표단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이렇게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으로 기쁘고 선후배 동기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올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새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대표단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팀은 일이라 설행기도 하고 건강도 많이 되면서 후배들과 동기들이 잘 참여해주고 많이 도와줘서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 앞으로 각 학년 대표단이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같이 잘 이끌어온 기획부와 수권어부 비롯한 나머지 부서장들 모두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표단들에게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처음 볼 때와 같은 성정체 파악할 그 이상을 가져오 그 후배들을 잘 도와줄 수 거라고 믿고 또 그렇지만 좋은 친구들이 함께서 너무 기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책은이, 상인어, 송어, 신하어, 서명어, 존은어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영민어 여러분들이 대표단인 김... 42회 동계 여러분, 남은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내년엔 우리를 이받아 올 좋은 대표단 뽑아주세요! 같이 본과 생활 하이할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과 1학년



### 대표단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학교 분위기도 모르고 책임이 한데서 대표단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동기들 모두 나서서 도와주면서 큰 문제없이 일 년을 보냈 것 같습니다. 일하는 동안 교정한다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 올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 있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동기들에게 존소리를 한다는 것이 본과 이과에 다른 의미로 존당되는 경우도 많이 무어극장을 격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잘 따라와 준 동기들 덕분에 무사히 한 해 일기를 마무리시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 앞으로 각 학년 대표단이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있던 예과 2학년들이 본과 1학년이 되어 올라오면, 중간에 합류하게 되는 신입생들과 함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행의 변화할 것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대표단 생활이 되겠지만, 용다면 좋은 학교 생활 내에서 일한 만큼 있는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은 장소, 여섯한 동기들, 성숙한 환경에서 처음 일한 직책이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많은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일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오히려 생겨 본과도 생기긴 했지만 너그러움 마음으로 이해해주신 동기들에게 감사합니다.

## 보과 2학년

### 대표단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먼저 저희 학년을 자식처럼 잘 지도해주신 담임 교수님께 전성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단을 맡은 게 잊게 같은데 다시금 재가원전 바깥공기를 쫓아내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훌쩍나 새삼 놀랐습니다. 학업과 상습에 매진해 대청산들이 많아왔던 한 해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기에 웃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표단의 부임을 벗어날까 근대 전역 때와 같은 시원성성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후한한 감정만 많이 드네요. 앞으로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 올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지난 1학기를 무사히 마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때, 저희 대표단에게 서로 격려하며 남은 한 학기도 열심히 해서 사건사고 없이 잘 해보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와 후회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버프는 한계로 후배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많이 신경써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언제나 선배로서 힘이 되는 한, 많은 후배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 각 학년 대표단이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대표단을 하면서 무리하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가장 큰 것은 같이 고생한 '대표단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남에게 할 산들이 많았지만 대표단 모두가 합심해서 잘 해나간다면 훗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평평성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학우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절히 한계를 물려서 넘겨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올해 초에 대표단을 시작하면서 '말해가 끝나갈 때, 단 한 명의 동기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는 말을 들었는데, 매우 훌륭한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대표단을 잘 따라온 동기들에게 전성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재규체임 단합되는 모습으로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말이, 이말이!



## 보과 3학년

### 대표단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대표직을 내려놓은지 벌써 다섯달이 지나 대표단이었다 기억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서로의 한학기가 훌쩍 지나 벌써 연말이 되었네요. 정말 한해가 길고도 짧게 느껴집니다.

### 올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성취감 있었던 일은 연내생 직지를 한 것이고, 가장 아쉬웠던 일은 역시 연내생 직지를 하는 것이 되었는데, 연내생 직지를 하고 p.u로 전승하고 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이 늘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각 학년 대표단이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대표단의 위치가 학교생활이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핵심에다 보니 가장 여성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용과 마음이 자랄수록 어떤까지도 없지만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진짜 7학년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서로 보듬어주며 모두 웃으며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과 4학년

### 대표단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할 일이 많아 정신없고 힘든 적이 많았지만, 어느새 돌아보니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공익과 책임감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점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국시가 남아있어 마무리하는 기분보단, 동기들이 모두 무사히 국시를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올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대표단 학우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많은 동기들 덕분에 무사히 PK생활을 마무리 한 것이 가장 성취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학교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은 동기들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다양한 지역,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겠지만, 동기모임을 통해 자주 얼굴을 뵈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각 학년 대표단이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기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를 맡아주신 새로운 대표단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년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신을 지켜, 동기들의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책임있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학년 마무리 많은 일들로 인해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한 자산을 보게되리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4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대표단을 하고 힘든 일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1년도, 지난 4년간 잘해 왔듯이, 서로 도와가고 힘내서 국시 전원 합격합시다. 화이팅!



## 33대 학생회 '가온'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인사

기사 김대근 / 편집 문유리

2학기도 마무리가 다가오고, 2016년도 학비지에 이르렀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언제나 큰 무대에는 학생회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 두 사람이 있었다. 이제 곧 임기를 마치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학생회 이름인 '가온'에 걸맞게 온 학우들의 응원이 되었다. 앞으로 두 학우에게 탄원대호가 넘쳐질 바라며 33대 학생회 '가온'의 회장, 부회장이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박민수입니다.

각년 어릴 때부터 각 학년별로 인사드리면서 무로 준비를 하던 생애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상당히 훌륭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자랐는지 세상 재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 학생회장을 하고 보니, 저는 단지 학생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하나의 힘보다는 학생회 모두가 열심히 일했기에, 어떤 것이 할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것 경험도 부족한 것을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해 준 부학생회장 노종문학우와 각 국의 국장들을 비롯하여 학생회뿐만 아니라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고 도와주었던 동기와 학우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에 국 시 자립단을 하면서 한 해의 시작을 느꼈다면, 이제 학생회장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올해가 끝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들 기쁘게 한 해를 달려 온만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학생회장단의 구성을 축하하면서, 다음 학생회는 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대학과 치과학전문대학원의 축제인 건치제도 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학생회장 노종문입니다.

선거모스터 제작할 때가 없던지 같은때 벌써 이렇게 2학년이 끝나갑니다. 제게 임기 1년은 짧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짧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박민수 학생회장과 함께 동기,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든 행사를 잘 치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생회를 시작했는데, 긴장과정이 실수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떤 일들도 있었네요. 제 그릇이 좀 더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회장단 앞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국장들, 동기, 학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건치제가 우리학교에서 우리입니다. 올해보다 훨씬 해 이 할 일도 없고 힘들것로, 저가 학생회장단이 다음 1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학생회장 박민수

부학생회장 노종문

안녕!

# 34대 학생회 '이슬'

33대 학생회 '기운'의 버팀목을 이어받아 2017년을 무려나갈 34대 학생회 '이슬'이 탄생되었다. 많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될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사 조영원 / 편집 윤우리

## Q1. 이슬이 무슨 뜻인가요?

이슬은 순수 무리없이 '소나무의 기성과 울퉁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숨은 뜻으로 '이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 학생회가 굳건한 소나무와 같이 학생과 학교의 중심에서 바로서자고 생각해서 지어보았습니다. 또한 구강 위생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잇솔처럼 항상 학생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도 넣어 이번 학생회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Q2. 34대 학생회 구성과 인원



## Q3. 학생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강호라고 하는 비가 다른데 '이슬'은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강호라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이번 학생회 임기 중 전치제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각 국별로 일을 맡을 체계적으로 분담해서 각자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각 국의 강동이 국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4) 1년간 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텐데 특히나 해보고자 생각 중이거나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일이 있나요?

전국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이는 큰 행사인 전치제가 2017년 본교에서 열리게 되어 저희 학생회가 행사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행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전치제를 치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회 구성원들이 이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우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위상에 누를 끼치지 않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5) 예과출신 학생들이 본교로 진입하는 것 해에 학생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과생들이 본교로 진입함과 동시에 편입생들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과생들이라는 2년간 같이 지냈고 현재 본과생들과도 동시적으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편입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같은 학년 안에서 동기라는 생각으로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편입생들과 예과생들이 융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거쳐 서약할을 맺는데 도움을 주려합니다.

##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먼저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주시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학교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스스로가 학교생활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를 이끌어 가는 것도 소중한 추억을 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바라고 학생회 임원들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



# 2016 미국대선

## 힐러리 VS 트럼프, 트럼프 VS 힐러리



2016 하반기 미국 대선 열기가 전 세계를 달구었다. 대선 결과가 차라 전 세계가 영남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월 9일 도디어 미국 대선 결과발표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다수의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가 4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결과가 발표된 이 시점에서 미국 대선에 시각부터 신재까지 이르기에도 대해 알아보자.

### 미국 대선 방식 1. 표거은 공화당 대선, 노후와 선출 방식은?

미국 대선은 1792년 제정된 연방 법률에 따라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11월 8일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State)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해 간접선거를 해서 승자가 특정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의 경우 직접선거가 불리하고,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은 '인구-공화당 국민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주(州)별 코카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후보자선거) →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 → 대통령 선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2월에서 6월까지 프라이머리나 코카스를 통해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들을 뽑고, 여기서 정선 대의원은 7~8월 열리는 전당 대회에 참여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후보 지명전이 끝나면 각 당의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 거점선 정쟁을 벌이고 각 인들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다.

선거인단은 주별로 상원의원(100명)과 하원의원(435명) 수를 감안 한층에서 49%에 해당하는 주(州)인 워싱턴DC의 선거인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자기 대통령이 될것인데,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얻으면 당선된다. 선거인의 자격은 연방 공무원이거나 군인 혹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한다. 대대로 정당의 활동가로서 정당에 대한 기여가 없고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 상원(州)에서 선출한다. 승자독식 방식인 선 주에서 어떤 후보가 그 주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가게 되는, 즉인 방식이다. 그래서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인단이 많이 해당에 있는 큰 주에서 이기기 위해 거점선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은 1월 20일로 정해져 있고 4년 하차 할때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에는 임기 2년의 435명 하원의원 전체와 임기 1년의 상원의원 중 삼분의 일도 동시에 선출한다.

### 미국 대선 방식 2. 힐러리 VS 트럼프, 가운 승자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나간다. 둘 다 우리에게는 낯고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신간 선택이 아닌, 미국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생활들의 박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발흥한 미 전 대통령의 영부인 출신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남편보다 더 활발한 일거 일보들을 일으켜 세계 최초 부부 대통령의 꿈을 갖고 대선 도전하였고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이기도 해서 그 결과가 주목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통령 재벌이자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해 이용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거점선은 연변과 함께 경제 위기에 미국에 부자라는 아이즌을 달고 나타나 아무도 예상 못한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

### 미국 대선 방식 3. 힐러리 VS 트럼프, 트럼프의 승리로

다수의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승리하여 45%의 미국 대통령에 되었다. 대선 기간 동안 격심한 언쟁으로 흠이 많은 힐러리 후보였고 마지막이고 공적적인 공약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의 외교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주면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 오주에 / 편집 손재지

#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윤양진/ 편집국장



을 주석, 각종 백화점과 마트의 마케팅 표현들은 '김영란법'이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고직원을 통해 일경 규모 이상의 (식사대금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덕분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3만원, 5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의 상품들이 때문에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교수가 학생에게 전과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유행하기 커 선 강한 논란을 거쳐 시행된 김영란법, 과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 부정부채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법행위인 김영란의 제언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와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간 대법원인 김영란이 법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일명 '벤츠여승사 사건'으로, 2011년 경 최 모 변호사(남)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여)에게 사랑의 증표로 벤츠 리프트 대납, 명품 핸드백 선물 등의 금품 수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15년 대법원은 '공직과 사익의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의 현행법 상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당초 김영란이 제안했던 법률안과는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2015년 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부분이 빠졌으며,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법 제안과는 달리, 대상 범위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초안과는 많이 떨어진 이 법률은 여전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강의료가 시간당 30만원으로 상한액을 책정한 것에 대해 오히려 자식을 다수에게 강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국공립 교수들이 사립대로 이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체에 피해를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여기에는 농수산업계가 지나치게 영점특수만을 노리고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있다. 고위 공직자 등의 손님을 대상으로 영접하던 고급 음식음료의 경우 매출 하락이 예상되어 외식업계 역시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 측면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약 11조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경제 GDP(2016년 기준 약 1조 3천억 달러, 합계 약 1,500조원)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경제당량 성장률 외에는 '뇌물 소비는 권장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임기'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난 지금, 그로 인한 변화의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직경인 73%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감대가 줄었다고 답변했으며, 외식업계-공연업계-중소기업 등에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김재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김영란법이 한우 농가 고사 직감"이라며 인티브를 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경제적인 변화 외에도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양심을 품고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전 인사청탁금지  
5.31 제1차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국민의 대표님  
4.26 민생서민정책포럼  
제1차 국민권익위원회

